

Better Better PEOPLE WORLD

2004 September

9



표지인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우리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산업정책통으로 수출과장, 산업정책국장, 자원정책실장, 차관 등을 거치면서 산자부의 업무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업무 추진력과 독심으로 '프로정신'을 가진 공직자란 별명을 얻으며 부하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취임 후 '기업의 기살리기를 강조하며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이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혁신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방안과 공직자로서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 3 머릿글
이상영 (주)농협유통 사장
- 4 월프로그램
9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 10 커버스토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14 나의 경영이야기
김서기 (주)태창가족 사장
- 16 화제의 지자체
안상수 인천시 시장
- 19 나를 변화시킨 한권의 책
이요셉 한국웃음경영연구소 소장
- 20 세상을 보는 눈
손경식 흥익삼경개명원 원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28 회원칼럼
김덕희 인천시의회 의원
- 29 발행인편지
- 30 이시형 칼럼



이 시대 新-重農學派

농민 층 분해가 심화됐던 조선 후기, 농업을 중시하며 농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한 중농학파에 관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한번쯤 공부해 봤을 것이다. 정약용, 유형원과 같은 대표적인 중농학파 학자들은 토지 균등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2004년 오늘의 우리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농가 부채증가 등 대내외적 압력으로 농업의 근간이 균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지면적은 매년 1%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해 2005년에는 180만ha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사지를 땅마저 부족하게 될 실정이다. 이 뿐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뭄이나 태풍, 폭설의 피해도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어디선가 한 모금의 담배 연기가 타들어 가는 農心을 달래고 있을 터이다.

2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농업기반을 다지는 디딤돌로 토지개혁을 선택했지만, 현재 우리의 농촌 문제는 그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다원화된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해답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 바로 농산물 유통개혁이었고, 이를 위해 농협유통이 설립됐다.

농협유통은 경기침체로 인한 유통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매출액이 창립 첫 해인 1995년보다 무려 19배나 성장해 창사 9년만에 매출액 2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류 기계화



와 표준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과일류는 100% 국제 규격 파레트와 지게차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규격화된 박스로 출하하는 회원에게 출하우선권을 부여해 산지의 물류 표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없애고 농가

수취 가격도 10% 이상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농협유통이 취급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농민을 배려하지 못해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금번 조직개편 때에는 직거래 농산물 유통시스템 혜택이 더 많은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도매활성화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협유통은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접속자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큰 성공이 기대되는 농업 정책이나 농산물 판매 매출액 급성장이라는 통계보다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서두에서 국사 이야기를 꺼낸 것도 농업을 중시하며 농촌을 살려 보자는 선조들의 뜻을 되새겨 보고자 함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1차 산업보다는 3·4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21세기를 달리는 지금, 산업으로서의 농업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생산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농산물을 파는 힘' 실천에 주력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젖줄인 농업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그 본질가치마저 위협받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업 위기는 200년 전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조선사회 발전을 꾀한 중농학파의 뜻은 200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용 가능한 '고귀한 가치'이다. 옛 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내는 '溫故而知新'의 지혜를 모아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물류의 혁신, 친환경 웰빙농산물 취급 확대, 부가가치를 높인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등 우리나라 농업개혁 방향을 제시할 이 시대 新-重農學派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人間**

이상영 (주)농협유통 사장

1945년 생 / '69 서울대 농대 졸업 / '72 농협중앙회 인사 / '85 농협 농촌지원부 영농지도과장 / '94 창령 세계화농업지도자 교육원장 / '96 농협 원예특작부장 / '99 농협 유통개혁추진본부장 / '00 농협 서울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회장 비서실장 / '01 농협중앙회 유통기획담당 상무 / 현 (주)농협유통 사장

9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 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책임

1366회 9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쓰에마쓰 요시노리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

'잃어버린 10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신문과 방송 등에 반드시 등장하던 말이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들이 앓다투어 깎아 내리던 과거 10년사에 관한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사라졌다. 현재 일본 지식인들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사에 관한 부분이다. 바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치·경제구도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와 일본이 21세기 아시아에서 가지는 역할과 비중을 논의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은 美·日 동맹을 근간으로 이라크 파병법을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문제를 외교적인 관점에서 풀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치인들의 행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일본 정치평론가들로부터 공격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가 중에서 보기 드물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며, 냉정·침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쓰에마쓰 요시노리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의 양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쓰에마쓰 의원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여 북한 핵, 이라크 사태, 자위대 파병, 헌법개정, 美·日문제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서는 제야당의 외교정책통으로서 이를 비판하고 아시아인들도 납득할 수 있고, 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국립추모시설을 건립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치·경제·외교·종교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세계 무대와 아시아에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일본 민주당의 외교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교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 日 히토쓰바시대 졸업(1980)
 - ▲ 美 프린스턴대 석사과정 수료(1986)
 - ▲ 외교성 입성, 결혼전 당시 중동 경제협력 담당(1980)
 - ▲ 통상성 파견, 국제석유문제 담당(1986-88)
 - ▲ 日 동경 제19구 중의원의원선거 민주당 당선(1996)
 - ▲ 중의원국회의원선거 2기째 당선(2000)
 - ▲ 중의원국회의원선거 3기째 당선(2003)
 - ▲ 외교위원회 이사, 이라크재건지원 특별위원회 이사, 이라크사태 특별위원회 위원
- (저서) 내가 외교관직을 그만 둔 이유, 정치의 구조, 大和再光



20세기와 21세기 그리고 드러커의 경영사상

1367회 9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재규 대구대학교 총장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는 육체작업에서 지식작업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은 우리 국민의 학력증가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한 지식근로자가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욕구 및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지 아직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식근로자가 중심 노동력이 되는 기능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은 지식노동생산성 향상이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근로자의 동기부여는 그들 스스로부터 나와야 하며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인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성취욕구이다. 또한 지식근로자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근로자들에게 직업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성과향상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도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명령은 지식으로부터, 즉 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중심 조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의료활동 결과에 책임지듯 지식근로자 역시 전문가로서 자신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구대 이재규 총장을 초빙하여 현대경영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사상과 미래사회의 변화 및 한국사회의 비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상학과 졸업(1970)
 - ▲ 서울대 경영학 석사(1980)
 - ▲ 경북대 경영학 박사(1986)
 - ▲ 현대자동차공업 근무(1969-71)
 - ▲ 연진약품공업(주) 이사(1974-80)
 - ▲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1981-현)
 - ▲ 美 포틀랜드 주립대 객원교수(1986-87)
 - ▲ 美 보스턴대 교환교수(1993)
 - ▲ 대구경북 경영학회 회장(1994)
 - ▲ 대구대 경상대 학장(1995-96)
 - ▲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1997)
 - ▲ 대구은행 사외이사(1999-현)
 - ▲ 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2001)
- (상훈) 전경련 출판문화상, 대구대 사회과학부문 학술상 외
(저서) 피터 드러커 평전, 경영정책론, 노키아 스토리 외



남북협상과 협력관계 어디까지 왔나

1368회 9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정 세 현 전 통일부 장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눈부신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하늘과 땅, 바닷길이 열렸고, 인적왕래와 물적교류도 증대됐다. 남북간 교역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서서 남측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교역상대국이 됐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당국간의 대화도 지속돼 왔다. 국방장관회의를 비롯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합의했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균형발전이 서서히 시작되는 느낌이다.

남북간에는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 이른바 3대 경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산업의 경우 육로관광의 정례화와 당일 및 1박2일 관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의 지속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시설확충을 비롯한 출입 간소화 등 기본적인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미수급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이 역시 건설에 대한 일정 규모의 자재와 장비지원 등이 필요할지 모른다. 개성공단 개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북측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어 개성공단지역으로의 전략물자 반입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5차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냉각기가 진행중이다. 경제협력과 군사협력교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의 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2년 취임 후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중역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빙하여 남북협상과 협력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71)
- ▲ 서울대 국제정치학 석사(1973)
- ▲ 서울대 국제정치학 박사(1982)
- ▲ 국토통일원 공산권연구관(1979-83)
- ▲ 국토통일원 제2연구관(1984-86)
- ▲ 세종연구소 정치외교연구소 실장(1986-90)
- ▲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1991-93)
- ▲ 대통령비서실 통일담당 비서관(1993-96)
- ▲ 제3, 4대 민족통일연구원 원장(1996-98)
- ▲ 제11대 통일부 차관(1998-99)
- ▲ 명지대, 경희대 객원교수(1999-01)
- ▲ 제29, 30대 통일부 장관(2002-04)

〈상훈〉 문교부장관상, 국회의장상, 청조근정훈장 외
〈저서〉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한반도의 통일전망(공저) 외



노화방지와 건강장수

1369회 9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권 용 옥 AG클리닉 원장

인간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 못되기에 건강함을 바라는 꿈과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함께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질병에 시달리면서 흥미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천수를 다했다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살아온 햇수가 아니라 몸의 노화정도인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노화를 유전적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노화는 생활 속의 각종 선택이나 행동양식이 개인의 수명과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노화방지의학'이란 학문으로 노화방지(Anti-Aging), 생명연장(Life-extension), 장수(Longevity)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노화방지 의학은 단순한 장수를 위한 의학이 아니라 장수와 더불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의학분야이다. 또한 노화방지를 통해 생명연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동국대 의과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를 역임하고, 노화방지의학에만 전념하여 중간조선이 선정한 '질병별 명의 첨단기술의 현장 50곳'에 노화방지 전문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노화방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권용옥 AG클리닉 원장을 초빙하여 인간의 꿈인 생명연장과 함께 건강하게 장수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 ▲ 서울대 의과대 졸업(1987)
- ▲ 서울대 재활의학 석사(1995)
- ▲ 서울대 재활의학 박사(2000)
- ▲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수료, 전문의 취득(1995)
- ▲ 동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동국대 의과대 재활의학과 주임교수(1995-02)
- ▲ 권용옥 노방클리닉 원장(2002-04)
- ▲ 서울대, 이화여대, 단국대 의과대 초빙교수, 美 노화방지의학회 정회원(현)

〈저서〉 나이가 두렵지 않은 웰빙건강법



버그박사 이해곤의 창의인생 이야기

1370회 9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 해 곤 (주)매니푸니 / 버그박사(주) 사장

세계경제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 창의력이 제1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창의력 없는 사업개발이나 제품은 곧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정해진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 생각하려고 한다면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작은 발상의 전환, 창의력을 발휘해 전세계에 주목받는 중소기업인이 있는데 바로 '매니푸니', '버그박사'의 이해곤 사장이다. 1987년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업체에서 일하던 이 사장은 신발 생산공정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작은 클립하나를 발명함으로써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그 일을 계기로 1998년 두 번째로 발명한 '신발끈 결속장치'는 현재 미국,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15개국에 특허 등록을 마쳤고, 60여 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세계시장 독점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차원 그림 개념의 창의력 교육용완구인 '버그박사'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버섯제조공정을 개발해 영역을 초월하는 창의력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발명을 하고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며 새로운 발명과 '창의적 교육'을 위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중인 이해곤 사장을 초빙하여 그의 창의적인 인생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춘천교대 2년 중퇴(1983)
- ▲ 나이키 한국지사 생산과장(1987)
- ▲ 라스팅 클럽 발명(1992)
- ▲ 신발끈 결속장치 발명(1998)
- ▲ 창의교육 교구재 버그박사 발명(2002)
- ▲ 황토노타리 버섯 개발(2002)
- ▲ 유한대학 창의력 개발센터 소장(현)
- ▲ 민족사관고 창의교육연구소 소장(현)
- ▲ 창의교육 프로그램 시프트스트 개발(현)



제136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2004년 8월 12일 목요일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초경쟁력시대의 기술개발과 CEO의 리더십 문제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나는 오늘 삼성종합기술원에서 5년간 연구를 어떻게 혁신했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이 되는 나라들을 조사해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시민들이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선진과학기술의 강국이라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의 강국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 없이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 진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되기가 어렵다. 오늘의 강의는 기술의 혁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술혁신, 첨단기술개발을 모토로 시작한 삼성연구소

우선 기술원 소개를 간단히 하겠다. 삼성에서는 1980년에 삼성전자연구소를 처음 만들고, 1983년부터 1년에 한 개씩 메모리 라인을 세우면서 1987년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술원 앞의 '무한탐구 정신'은 이병철 회장이 만든 것인데, 삼성의 기술혁신, 첨단기술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표현이다. 기술원은 대학이나 정부의 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협력 받아서 각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예산이 2,500억이고 종업원이 930명 정도이다. 그 중 박사가 38%이고 외국인이 80명 정도인데, 외국인의 반은 러시아에서 30~40년의 경험을 가진 박사들이고 그 외에 중국, 일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최근의 융합과 복합시대에 가장 좋은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이다.

처음 기술원에서는 설립이념인 기술혁신에 충실하지는 얘기를 했었다. 초기에 기술개발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1~2년 동안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개발분야에서는 제품이 나오는데, 기술원은 2~3년에 지나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들이 최고경영층에서 나오기 시작



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신경영을 시작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인데 이 리더를 구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 3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다가 임관 회장이 선진시스템을 구축했다. 1999년부터 내가 한 일은 '일하는 방법(how to do)'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what to do)'의 두 가지 분야에서 혁신을 한 것이다.

미국의 연구개발은 조직적, 과학적, 합리적 방향으로 변화

우리보다 100~200년 앞서서 연구개발을 시작했던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과학기술의 강국이 되었을까'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로 조사를 했다. 미국이 연구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인데, 전쟁과정에서 보니 역시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조직적, 과학적, 합리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양성하고, 프로젝트를 단계마다 다시 검토하고 바로잡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연구개발도 군대가 하듯이 한다면 세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의 경영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오늘날 세계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일본의 연구개발은 고객과 직접 얘기하는 방향으로 변화

일본의 기업연구소들이 변화한 것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

다. 1970년대까지는 'Laisser-faire(자유방임, 무간섭)'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프랑스어로 '날 좀 내버려 두라'는 뜻이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가만이 안다, 다른 사람이 상관 할 바가 아니고 내버려두면 아주 좋은 것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연구성과가 끝나면 사업부분으로 넘겼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변화가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변화의 시대,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빠른 변화의 진행으로 연구소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사업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그룹과 함께 연구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이보다 더 가속화가 진행되어서 고객과 직접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시계는 미국시계보다 10~15년 늦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도 10~15년 늦는 것이다. 시계가 늦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과학자에서 엔지니어로 변화하는 것이 R&D혁신의 시작

이러한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R&D의 4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 1세대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채용하고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시대이고, 2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 3세대는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된 연구개발을 하는 시대이다. 4세대는 벤처시대를 생각하면 된다. 벤처는 그 안에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을 한 묶음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 시장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다. 4세대의 R&D혁신은 미국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내가 1999년에 기술원에 갔을 때는 1.5세대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것을 한 묶음에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4세대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대부분 한국의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구별하지 않고 가르친다. 나는 기술원에 처음에 가서 한 얘기가 "앞으로의 기술은 돈버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로 갈 것이고,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남아라."고 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데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과학자에서 엔지니어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기술원에서 지난 10년 간 했던 과제를 조사해보니 18%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기술원의 기록에는 95%이상 성공했다고 되어있었다. 기술원의 성공이란 사업부분에서 그 기술을 인수해 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부분에서 그 기술을 가져간 것은 기술원에서는 다른 회사가 안 하는 것을 하다보니 기술을 인수



해 간다는 것은 곧 삼성관계사와의 경쟁 속에서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이 된다. 이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이 좋은 나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몽땅 가져가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What to do'의 시대에 특혜였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화의 실패가 되었고, 목표가 맞지 않아서 중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프로세스 혁신과 프로세스 질 향상이 4세대 R&D

이제는 오직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저 모양만 갖추어서 비슷한 것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생각이 실패의 원인이자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리고 기술이 완성되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원천특허를 등한시한다. 재미있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개발하려면 수백, 수천 번의 합성을 한다. 이 과정을 잘 기록해 놓아야 하는데 기록과 분석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어찌해서 성공적인 것이 나온다. 실제로 기술원에서 IBM의 요구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몇 천 번의 실험 끝에 3개의 기가 막힌 샘플이 나왔다. 연구한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IBM에 성공사실을 알렸고, IBM에서는 제품으로 생산하길 주문했다. 그런데 몇 천 번을 해서 3개가 나왔으니 3만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실험을 해야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산포의 문제이고, 6sigma의 문제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6sigma를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Quality, Quest, Delivery, Service'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기술원 사람들은 아마추어이며 앞으로는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목표는 초일류가 되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초일류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모른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책이 없어서 연구원들에게 교육했던 파일들을 모아서 「초일류 목표설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

다. 이제는 R&D도 리서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개발까지 하는 돈버는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의 삼성전자에는 2,000명 가까운 박사들이 있지만 1999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이외에는 박사들이 없었다. 기술원이 결국 가장 많은 박사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저 신기술개발만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들은 현장을 알고 사업부문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정신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아마 도요타에 가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것이다. 도요타 공장이 기계가 사고로 멈추면 정비파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설비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의 생산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신설비 개발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신설비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역량으로 위기에 처한 생산라인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개념을 우리 박사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관행들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선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하므로 일하는데 보다 집중을 해서 삼성이 2010년이 되었을 때 기술원이 기술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갖도록 하자고 했다. 전부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자는 생각에 2010년까지 3년, 3년, 4년의 단계별 기술 비전을 만들고, '비전 2003'이라는 3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캡슐에 집어 넣어서 2003년 11월에 오픈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각각의 조직에서 원래 목표했던 3년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지금은 2007년 계획을 넣었다.

다음으로 리엔지니어링으로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4대 대혁신, 6sigma 연구혁신의 두 가지를 섞어서 추진했다. 2001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 기술원의 기초기술은 그룹의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회사의 사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때 기술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꿈과 전략이 있는 기술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것을 전부 합치면 4세대 R&D라고 하는 프로세스 혁신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6sigma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질을 높이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기술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박사인데 누구에게 물어봐, 우리 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일 잘 알아'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첫째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Market Roadmap'으로 10~20년 후를 내다 봐야 한다. 그 마켓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떠한 제품으로 승리할 것인가의 'Product Roadmap'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떠한 기술로 만들 것인가 하는 'Technology Roadmap'이 세 번째이다. 나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부만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체가 이러한 로드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3T(TR, TT, TRIZ)와 KI(氣)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 네 가지를 의무화하였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다 해놓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해주는 것이다. 안 하면 승진이 안 되고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다. 6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처음에 이것을 하는데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IT분야였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IT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이다. R&D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고객의 CTQ(Critical to Quality,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를 잡는 마케팅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시그마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KI(氣)'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말로는 '와자지켄 미팅'이다.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가장 큰 요소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누구에게나 얘기하며, 한 팀을 이루면 서로 그 팀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100% 쏟아 넣는 것에 비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불통으로 인해서 20~30% 밖에는 쓰지 못한다. 우리는 개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KI(氣)'미팅이다. 우리 반도체 메모리가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수요공정회의'라는 것인데 거기서는 기술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토론을 하고, 사장이 누구인지, 사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사장에게라도 바로 말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는 전략의 質, 계획의 質, Idea의 質, 실행의 質, 대화의 質 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자의 10가지 약속이라는 'G-PRO 10'을 만들었다. 1. 매일 논문 한 건 읽기 2. 매주 특허 조사, 매년 1건 해외특허 출원 3. 분기 CDP점검(차원 향상 학습) 4. 6Sigma GB 필수(일하는 방법) 5. 하루 10분의 사색(삶의 목적) 6. 매일 고객과의 만남(CTQ) 7. 세계고수 10명과 네트워킹 8. 동료 공(功)은 10배, 나의 공(功) 1/10(큰마음) 9. 점에서 선, 면, 입체로(X-Eng) 10. 최고, 최초의 도전(초일류 목표) 등인데 삼성전자의 공학

연구소가 문을 닫고 기술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규모 또한 굉장히 커졌다. 개발비가 4배정도 늘어났고, 특히 출원은 12배가 늘었다. 그리고 외부와의 협력자금이 17배가 늘었다. 그리고 시험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이 25~30일 걸렸으나 지금은 2~3일인 1/10으로 줄었다. 프로세스 혁신인 것이다. 과제도 18% 성공하던 것이 2001~02년에는 61%로 늘었고, 2003~04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CEO의 책임이다.

이제 CEO는 변화를 실천하는 혁신가가 되어야

기업의 생존 부등식을 보면 지금은 상품의 가격과 원가를 비교해서 원가가 싸면 공급하는 시대가 아니고 원가와 함께 고객의 가치도 같이 충족시켜 주어야만 되는 시대이다. 1980년대에 와서 CEO는 기술을 아는 Techno-CEO가 되어야 했고, 이제는 변화를 실천하는 혁신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날로그시대는 일상적인 관리 즉, 매니지먼트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말 단절의 시대이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다. 리더는 방향설정, 인적자원 집중화, 동기부여, 사기진작을 통해서 변화를 활용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6Sigma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이제는 프로세스와 데이터로 일을 하고 근본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과거와 같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하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거기서 실패했을까, 우리의 프로세스를 살펴보자'는 입장이 맞는 것이다. 우리는 관리부분은 잘하지만 컨셉을 잡고 사람과 조직을 하나로 끌고 나가는 'Human Skills, Conceptual Skills'는 가르치지 않는다. 리더들은 Coach & Mentor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상생경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도 사람과 신뢰와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념도 같은 것이다. 앞으로는 'Give and take'의 시대가 아니라 'Give and give'시대이다. 고객에게 'Give and give'의 정신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가장 훌륭하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한다.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다보니 당시에는 이 분야에서 세계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 된 것이다. 15세기 전반부의 과학기술연표를 찾아보면 전부 한국이 최고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세종대왕실록이 가장 많은 분량의 실록으로 15세기 한국은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였다.

이제 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과학기술의 강국이 된다면 아마 한반도는 선진한국이 될 것이다. 결국에 CEO들이 얼마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단순하게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각 단계를 함께 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人間**

프로정신을 가진 공직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최근의 실물경기는 수출호조와 소비증가세 등으로 반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비촉진캠페인이나 긍정적 기업이미지를 확산해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30여년간의 산자부 생활을 마감한지 2년만에 장관으로 돌아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산업정책통으로 경제활성화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수출과장, 산업정책국장, 자원정책실장, 차관 등을 거치면서 산자부 업무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업무 추진력과 독심 때문에 '프로정신을 가진 공직자'란 별명도 얻으며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기업의 기살리기'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도시락 미팅', '호프 미팅'을 통해 격의 없는 토론으로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혁신'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방안과 공직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1949년 생 / '71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 / '87 美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 '03 경희대 경영학 박사 / '72 행정고시 합격 / '73~81 상공부 행정사무관 / '87~88 상공부 수출1과장 / '88~91 駐 미국대사관 상무관 / '94~97 駐 EU 한국대표부 상무관 / '97~98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99~00 산자부 차관보 / '00~01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 '01~02 산자부 차관 / '02~03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03 서울산업대 총장 / '03~현 산자부 장관

먼저 산자부의 주요정책을 간략하게 요약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산업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산자부의 역할도 그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산자부의 주요정책은 우선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들 수 있어요.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고 서비스 수출을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 확대 및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생적·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혁신신도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중소기업 청년인력공급 지원, 신기술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전 개발과 원유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원유공급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죠.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취임사에서 '기업의 활달리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 직원들의 기살리기 운동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성과도 궁금합니다.

참여정부는 과거정부의 개혁과 달리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어깨가 처져 있고 약해서는 고객감동이나 혁신도 불가능하고,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직원 기살리기'를 추진하고 습니다. 현재까지 7회를 진행한 '도시락 미팅'은 직급별로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데, 많은 의견들을 현장에서 곧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녁에 호프집에서 직장협의회 등 하급 직원들과도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참여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부여해 포상금이나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도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경조사, 외국어학습, 스포츠·레저 등 각종 모인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직원들의 참여하는 분위기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제고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3高현상(美 금리인상, 국제유가상승,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무장관으로서 실물경기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성장세 지속전망에 따라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되는 유가상승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



▶ 이회법 장관이 직원들과 도시락 미팅을 하며 산자부의 혁신방안에 대한 허물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 지난 달 19일 이회법 장관은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있는데 당분간 35~40\$/b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요. 최근의 실물경기는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나 6월에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상의 호조와는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이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난 7월 저희 연구원이 주최한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에 참석하셔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에 대해 강연도 해주셨는데요. 한국경제가 불황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한국산업은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성장해 왔으나 고령화와 출산율의 하락, 자본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에 한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만불 달성을 위한 적정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정책 측면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력기간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3각축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산업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지역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산업구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제조업 비중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제조업을 무시하고 서비스산업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수산업을 무시하고 수출산업으로 갈 수는 없으며, 전통산업을 무시하고 IT, BT와 같은 신 산업구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뿌리인 제조업, 내수산업, 전통산업을 기반이 되면서 그 위에 첨단기술과 서비스산업을 접목하고 수출을 해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 이회법 장관이 2004년도 차세대성장동력분야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 이회법 장관이 지난 7월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무역인 탑을 수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국진출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현상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작년에 제조업의 중국 등 해외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동화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 미국은 1980년대, 일본도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공동화를 겪었으나 모두 IT산업 발전 등으로 현명하게 극복해냈어요. 이들 국가에서 얻은 교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약화되나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도 발전하는 것이죠. 또 제조업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R&D투자와 인력개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제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해외투자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지법인에 대한 부품·소재의 수출증대라는 긍정적 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이전이나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 등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안정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활성화, FDI유치 등을 통해 해외이전 부문을 보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발전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역시 변수는 많다고 봅니다. 향후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출은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수·투자의 부진 속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1,938억불로 19.3%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도 7월까지 1,44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고유가의 지속, 중국경제의 건축가능성 및 노사관계의 불안 등이 향후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EU 등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및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4분기 이후에도 금액기준으로 월간 210억불 내외의 수출규모가 지속되어 금년 수출 전망치 2,4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이후 수출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Base Effect로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통계적 착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에 있어 지도자, 경영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장관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지방자치 아카데미'의 강사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인간개발교육'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 지역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전과 철학,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 교육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고위정책과정', '지역혁신 고위정책과정', '지역혁신 전문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교육대상을 분류하고 지역혁신교육의 목적, 대상, 교육요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사례학습, 분임토론, 현장학습 등의 입체적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산자부를 비롯해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오셨습니까.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사실 공직이라는 자리가 보람도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자리를 지키는 고행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주는 위압감,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죠. 그런 가운데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있었던 부분은 차관보 시절 '부품소재산업 국산화 방안'과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밑거름이 되고 있거든요. 또 자원정책실장 시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했는데 제가 다시 산자부에 와서 보니까 경영으로 인한 경영효율이 연간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금에 와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자국장 시절로 256Mega DRAM, 디지털 TV 기술개발을 삼성, LG 등과 컨소시엄 형식으로 시작했는데, 10년 전에 컨소시엄한 HD TV, DRAM 반도체 기술개발이 오늘날 수출효자품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경제가 표면적이지만 세계12위 권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장관님께서 97년 집필하신「유럽통합론」이란 저서가 대학원 교재로도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유럽연합은 지난 5월 1일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 10개국의 신규가입으로 총 25개 회원국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EU는 인구 4억 5천만명, GDP 9조 6천억 유로의 거대 단일 시장이 되었죠. 특히 이번 제5차 확대는 2차대전 이후 '동·서유럽의 개결합'이라는 역사적 의의 외에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작업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통합론」은 1990년대 아태국(APEC)간 자유무역지대 논의, 아시아·유럽간 정상회의(ASEM) 발족 등 다양한 지역협력 움직임 속에서 틈틈이 쓴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특히 브뤼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유럽 통합과정 및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와 대내외 정책, 한국과의 관계 등을 설명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인식제고 및 통합유럽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유럽대표부 및 상사원 등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술한 책이 학문의 장인 대학원에서까지

활용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산자부 차관 퇴임 때, 누구보다 가족들이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에 있다는 것은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보고 공직에 들어섰는데 저희 가족들 또한 제 대학 동기들이 일반 회사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산자부 차관을 퇴임하면서 언론에서 유임과 퇴임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저는 바뀌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환영하며 박수를 치더군요. 그 날 저녁 후임자 보도가 나올 때 이임사를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공직이라는 부담감을 떨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 일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온 반면에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던 점들이 많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장관님께서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1975년에 설립된 이후 30여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확충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현재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지방자치 아카데미, LMI프로그램, 지중해클럽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지금 하고 있는 'Koreans Network'사업 등을 발전시켜 글로벌 리더 육성에 노력하고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 혁신인재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관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

- 주류분야 프랜차이즈업계 선두주자

김 서 기 (주) 태 창 가 족 사 장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시작한다.
전통이라는 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눈으로 본다.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당당히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주)태창가족 경영이념 -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은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으로 기본에 충실하고자하는 태창가족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셀프리더로서의 자질함양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100대기업으로의 진출과 세계속의 태창가족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1C 유통 시스템의 핵" - 프랜차이즈 산업

(주)태창가족은 1999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쫄쫄이' 1호점을 오픈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창립 5주년 행사와 더불어 현재 태창가족은 국내 가맹점 500호점을 돌파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주류분야의 리더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진화된 사업모델로서 가맹점 구축을 통해 소매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21C 유통시스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과 성공을 이룩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사업시스템이다. 특히 IMF 이후 산업전반에 걸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확대 발전하는 계기를 맞고 있으며,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창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경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의 꽃"- 프랜차이즈 산업은 서비스산업이자 지식산업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요소는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의 3가지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중 무엇보다도 전문화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올바르게

김서기 (주)태창가족 사장

1959년 생 / '02 연세대 프랜차이즈 CEO과정 수료 / '03 연세대 의식산업고위자과정 수료 / '83 태창실업 창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 통일문화연구원 자문위원 / 강동구 상공회의소 이사 / 대한민국 CEO브랜드 파워 대상 / 현 (주)태창가족 사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홍보, 마케팅, 유통, 메뉴 및 매뉴얼, 관리 노하우 등이 결합되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러한 모든 노하우를 창업초기 교육시 본사로부터 습득하여 단기간에 창업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 진행시 노하우 습득시간이 소요되는 등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가 수반된다. 이는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단순 사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이자 지식산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진사회(GDP증가)로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경제성장 기여 및 고용창출 등 국가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과 동시에 향후 몇 년 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선진화된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 발전할 것이며, 지식산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차별화 된 업무시스템 도입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태창가족은 업무시스템의 활성화와 업무효율 증진의 일환으로 몇 가지 차별화 된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고정관념을 버리는 발상의 전환이다. 매주 금요일 남·녀 화장실 교체 사용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창의적 발상을 유도해 오고 있으며, 이는 개혁정신의 함양과 셀프리더로서의 자질을 육성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과의 증진 및 발표력 향상을 위한 '굿 뉴스' 발표이다. 매일아침 직원들 서로가 좋은 소식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굿 뉴스는 새로운 소식과 사건 및 사물을 접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표면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만 이해하였으나 현재는 그 원인과 결과, 과정에서부터 미치는 효과나 범위까지 사고를 깊게 만들고 있으며, 발표력의 향상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외부결재시스템 도입이다. 대표이사 직접 각 부서를 돌며 결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업무시간 및 결재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각 부서 방문시 현장의 정확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빠른 대처를 가능케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매월 칭찬릴레이와 전직원 외국어 습득을 위한 어학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최우수 사원을 선정하여 급여의 1,200%를 인상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10여년 전부터 월 급여 지급시에는 전직원에게 빵을 지급하는 등 '정(情)'의 문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모두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라는 좌우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재도 꾸준히 실천 중에 있다.

이러한 태창가족은 가족과 함께 시원한 생맥주를 즐기는 생맥주전문점 '쫄까쫄까'와 꼬치 및 세계요리를 접할 수 있는 세계꼬치요리전문점 '화투', 천연소스를 사용한 부드러운 치킨, 치킨바베큐전문점 '군다리치킨' 등의



▶ 외부결재를 하고 있는 김서기 사장



▶ 직원들과 함께한 김서기 사장

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창가족은 가맹점 창업시 발표식 교육과 현장 위주의 실습교육, 실전에 기초한 조리교육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노하우 및 시스템을 가맹점에 접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통산업인 만큼 하남시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유통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에 탄실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태창가족의 비전 -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

태창가족은 가맹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들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면서 평범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태창가족은 단기적으로는 "TCF 1004" 경영혁신 프로젝트(2006년까지 가맹점 1000개 개설)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통경제의 확장과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 100대 기업으로의 진입과 세계로의 진출, 그리고 지속적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라는 좌우명처럼 지금까지의 평범함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여 다시 한번 특별한 순간을 맞을 것을 기대해 본다. **人間**

동북아시아 관문도시로의 힘찬 도약

안상수 인천시 시장



▶ 송도 신도시 조감도

"이제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 동안 인천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그늘에 가려 유리한 지리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 위상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선 3기 인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상수 시장은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CEO의 현장경험을 살려 열정적으로 착수했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착실히 실행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큰 결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더불어 서울의 관문이란 타이틀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그 발전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인천'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을 만나 인천의 발전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인천시의 21세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민선 3기 인천 시정을 책임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요. 또 시장님만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민선3기 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260만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매우 높지만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김없이 수렴하기에는 시간을 아끼고 쪼개 써도 모자라는 아쉬움이 있

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하고, 국제공항과 항만·송도정보화신도시 등을 고려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이 수립되는 등 인천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한 매우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노력이 새로운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보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CEO 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공무원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에 공을 들였고, 기존의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인천만의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 인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정을 이끌어오시면서 무척이나 바쁘게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인천은 참여정부의 발전 전략인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 위해 송도·영종·청라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도시로 국가를 견인해 나가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단지의 조성 및 국방벤처센터 유치함으로써 수백 중에 이르는 연계사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

1946년 생 /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 미 트로이 주립대 경영학 석사 / 동양증권 이사, 감사, 부사장 / 동양Futures America 대표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99~00 제 15대 국회의원 /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 위원 / 태권도협회 상임고문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위원 / 인천시 총청도민회 상임고문 / '02~현 제4대 인천시 시장



▶영종대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담장없애기,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한 인천프로축구단 창단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과 예술대학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송의종합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등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영종, 송도, 청라 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이 동북아관문도시로서의 비전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여의도의 70배)으로 3개 지구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으며,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인천시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종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Sea&Air 물류중심지로써 부산, 광양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용유·무의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도지역은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추어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R&D허브화를 추진중입니다. 청라지역은 인천공항의 비즈니스 기반을 활용하여 서울과 연계되는 관광레저·테마파크 단지를 육성하고 수도권시민의 휴식공간, 외국관광객을 겨냥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김포신도시와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쾌적한 국제문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키 위해 기반시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송도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그 동안 1, 2, 4공구 306만평을 매립하여 지식정보산업단지 등으로 제공하였으며, 도

로, 교량, 상·하수도, 방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5, 7공구 198만평의 매립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였습니다.

영종지구 개발사업은 영종지역을 공영개발지로 확정하고 국방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물류 및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청라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계획 확정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중이며 단지조성공사는 2008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이나 물류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가요.

항공물류·첨단산업관광단지로 개발될 영종지구는 은북동지역에 국내외 화교자본 20억불을 유치하여 개발하게 될 '차이나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올 3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급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역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코자 지난 97년부터 '송도테크노파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금년 10월에 입주할 '국방벤처센터'의 설립 및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융·국제업무·관광·레저중심으로 추진될 청라지구는 2003년 7월 농업기반공사의 화훼단지 개발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2003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조사설계 용역 착수 등으로 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신항의 민자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P·H컨소시엄과 15억불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제(IPA)'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인천의 전통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함께 향후 인천의 경제적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의 결과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향후 시민들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그 동안 서울이라는 큰 그늘에 가려 제 위상을 찾지 못하던 우리 인천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민선 3기 2년 동안 시민과 각 계각층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과 적극적인 참여의 결실이었습니다. 인천은 이제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으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5~6년 후 인천의 역량은 지금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센터를 보유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로 기업인들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됨으로써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한 차원 올라가고, 지역경제, 교통, 복지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 송도신도시건설현장



▶ 차이나타운패루



▶ 송도테크노파크빌딩



▶ 월미도 문화의거리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높여 나간다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인천'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지난 4월 저희 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 모닝아카데미」를 개강하면서 시장님께서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자기혁신 및 개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개발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자에 들어 자기혁신이니 개발이니 하는 용어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말하는 "자기혁신"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인간개발교육'은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개최되고 있는 「인천 모닝아카데미」가 시민들에게 자기혁신을 자각하게 하고 견인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또한 그 동안 잘못된 행정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개선하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과제에 직면해 있고,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춘 상당한 공무원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각자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자기혁신은 거창하고 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Step by step,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와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천 모닝 아카데미」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인천 모닝아카데미」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을 깨우며 진행되는 강연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을 청강하는 분들마다 느끼는 것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강연을 듣는가에 따라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더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아깝게 허비한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매번 모닝아카데미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간단한 조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물어보면 잘 알면서도 잊고 있던 명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갈 수 있는 아깝지 않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좀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아직은 「인천 모닝아카데미」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인천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과제의 해법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강연과 더불어 시민들이 부담없이 지식을 일깨우고 또한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훌륭하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며 꾸준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닝아카데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人間**

나의 웃음철학에 디딤돌이 되어준

-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옛말 에 웃으면 福이 온다고 한다. 실제 웃음은 개인과 가정 에 幸福과 건강을 가져다주며, 기업에는 생산성을 올리고 팀워크를 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러한 웃음에 대한 나의 신념은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지난 7~8년 동안 일반인들과 암환자들에게 웃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왜 웃어야 하는지를 알려왔고, 기업체에서는 웃음이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웃음의 효과를 공유해왔다. 지금 돌이켜보건데 웃음으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자신이 좋아지게 되었고 삶이 즐겁게 되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함께 일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웃음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얇은 책이었다. 왜 웃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내가 왜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서 다시금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웃는 이유가 많지만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비전이 없으면 웃음은 그저 스치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정한 웃음은 이러한 삶의 이유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웃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터 프랭클, 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철학자이자 의사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수용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 자유란 모든 조건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모든 조건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자유'라고 말한다. 결국 운명처럼 주어지는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우슈비치를 비롯해 여러 지옥의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생존해야 했고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삶의 이유를 지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와 유머를 찾아 나선다. 그와 또 다른 재소자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는데, 프랭클은 어떤 재소자가 카포 중 하나에게 손짓을 하더니 "이거 알아? 내가 저 친구를 안건 저 친구가 겨우 은행장이었을 때였어!"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 감동을 이끌어 내어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아주 달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붉은 저녁노을의 장엄함, 동료의 흥얼거리는 노래, 수용소 입구에 핀 들꽃을 감탄하며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키워갔다. 그는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할 줄 알았고, 또한 지옥의 생활속에서도 '감동'할 줄 알았으며 느끼는 것 이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감탄'의 명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재소자가 빅터 프랭클에게 한 말은 아직도 나의 웃음철학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시오. 유리조각으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조각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이라도 바꾸시오." 빵 한 조각을 아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유리조각으로라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던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빅터 프랭클처럼,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떠한지, 왜 웃어야 하고, 웃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탁월한 책이다. **人間**

이요셉 한국웃음경영연구소 소장

1969년 생 / 경기대 경영학과 졸업 / 대한민국 최초의 웃음치료사 / 웃음경영프로그램 트레이너 / 웃음경영컨설턴트 / 웃음컨설턴트 / 대한민국 최초로 암환자 2500명 이상 웃음치료 진행 / 삼성, LG 등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웃음경영 컨설팅 및 강의 / 현 한국웃음경영연구소 소장

해청미술관 개관 후의 소감

손경식 홍익삼경개명원 원장

40대 중반에 관직을 나와서 서예가로서 또는 求道者로서 비교적 부담 없고 자유스런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는 子息의 配慮로 해청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한 홍익사랑빌딩의 건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무거운 짐을 진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세상사는 自作自受

원래 개인미술관을 갖는 것은 작가로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며, 이를 위하여 평소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준비 없이 돌연히 생긴 일이니 後悔莫及이었으며, 건물의 준공 전에 상설전시용 작품을 수집하면서 한편으로 개인전 준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 마음에 부담을 안고 지난 7월 15일 미술관개관 기념일을 맞이한 것이다.



미술관의 규모가 준비된 소장전 작품 170점(미술 각 분야)과 개인전 81점의 약 반수밖에 진열이 불가능하여 전시기간 중 2차로 순환 전시하려 하였으나 누구를 먼저 진열하기도 난처한 일하기에 5층의 미술관에는 소장전 작품을 진열하고, 2층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개인전 작품을 진열코자 임시 전시장을 설치하고 서둘러 개관기념 소장전 및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마가 시작되는 날을 택하여 축하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으나 고맙게도 수다한 하객과 꽃다발의 풍성함으로 하루의 축복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연3일간의 장마에 이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하였으니 관람객이 적은 전시장의 풍경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손경식 홍익삼경개명원 원장

1934년 생 / '63 국학대학 법학 졸업 / 충남도청 총무처, 노동부, 국가안보회의의 24년 재직 / 國展 특선 5회 / '71~'76 국전추천-초대작가 指定 / '78~'79 국전심사위원장 / '78~'04 개인전 8회 / 현대미술관 초대출품 6회 / 예술의 전당 초대출품 4회 / 서울시 초대출품 11회 / 국제전 서예출품 10회 / 현 홍익삼경개명원 원장

9월 15일까지 2개월간으로 전시간을 정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에 한번 가보면 되리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평소에 친분으로 보아서 왜 오르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모하게 개관을 서둘렀던 실수를 뉘우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새삼스럽게 열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세상사는 自作自愛로 모두가 자신이 지은 대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바라려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은 준비 없이 좋은 결과만을 쉽게 바라는 미련과 욕심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질 경제와 정신 이념의 위기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질 경제면이나 정신 이념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간단한 경제원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되면 적자를 보게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어찌되었지 하는 요행만 바라면서 무작정 쓰게되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할 것 없이 결국에는 빚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우리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 리가 없지만 대책없이 빚만 늘여가고 있으니 위기라 할 수 있다.

정신 이념면에서도 보수나 개혁이나, 우파나 좌파나 또는 반미나 친미나의 갈등 속에서 8.15광복 직후를 연상할 정도로 시비가 계속되는 중에 IMF당시 이상의 경제불황 속에서 중국의 東北工程계획이 실현단계에 이르자, 정부도 고구려만은 우리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상고사를 부정해오던 공교육의 失政 속에서 막강한 중국의 저력에 또다시 그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弘益理念 실천으로 국민화합 모색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게된 것은 우리민족이 自招한 것이며, 하늘의 뜻이라고 믿는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3·8선이 그어진 것은 사실이나 우리민족이 홍익이념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결코 분단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홍익이념은 망각하고 외세에 의하여 종교나 이념적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녔고, 그 결과가 오늘날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이유는 우리민족은 시작과 끝의 상징인 艮方에 위치하였고, 문명의 發祥이라는 견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우리조상이 弘益人間 在世理化의 사명을 받았으니(삼국유사 고조선 편) 즉 인간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 현재의 세상을 眞理化시키라는 天命을 받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인 21세기에 도달하여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이념 면에서 궁지에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은 하느님이 홍익이념을 실천하라고 국민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공 역사를 전개하리라는 것은 수다한 예시가 있거니와 그 징조의 하나를 例示하면 1992년도 바르셀로나(우리말로는 '바로 세울 수 있나'의 뜻)올림픽에서 시작과 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점과, 금메달, 동메달 12개(88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2개)를 쟁취한 것은 12지파의 中心地 한국에서 시작과 끝의 역사전개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갈 길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요, 국제간의 신의를 지키면서 오직 우리의 正體가 홍익이념에 있음을 깨닫고, 국조王儉의 儉素정신을 본받아 不要不急한 외화의 낭비부터 半減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며, 만남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의 길만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거니와 天地神明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은 주인공의 대열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귀여운 자식을 매질해서 키우는 원리로서 우리민족에게는 수다한 외침과 고난을 겪어야 했음을 깨닫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 21세기의 대운을 받을 준비의 시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늘의 계획은 결코 실행이 되고야 만다는 철칙에서 볼 때 끝까지 각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審判이요, 至氣大降인 것이다. 심판은 일년농사의 秋收 원리와 같으니 하늘이 전 인류 중에서 창조주를 닮으려 노력하는 人間種子를 추수하려면 된서리를 내려 알곡식만 추수하고 쭈정이는 버리는 것이 심판인 것이다. 이는 인간이 만든 말든 인간추수가 진행될 것을 모든 經典에서 경고하고 있건만 설마 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인 것이다.

필자는 70평생에 13회의 哀慶事와 個人展 등 행사에서 한번도 날씨가 좋지 못한 예가 없었다. 이는 天地神明의 특별하신 배려라고 믿고서 자만을 한 적도 없지 않았던 바 금번의 미술관 개관기념 작품전에서 기후로서는 최대의 악조건을 겪고 보니 自慢은 금물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從心の 나이답게 더욱 겸손하고 근면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것을 결심하면서 끝을 맺는다. (人間)

회원소식



• **장재완 한국청년벤처협회 회장**은 중국 강소성 상주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는 상주시 경제개발특구 기공식에 참석하여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중국측에서는 주룽지 전 총리, 상주시장, 개발특구 당서기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측에서는 장재완 청년벤처협회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최승부 법무법인 신우 고문 등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 **서울로타리클럽(회장 심대섭 / 명동의류 회장)**은 지난 8월 19일(목) 조선히otel에서 홍순영 한국외교협회 고문을 모시고 "美·中관계의 발전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SKC(대표이사부회장 김수필)**는 7월 30일 충남 천안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원생과 교사 100여명을 초청,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는 행사를 가졌다.

•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담은 윤리행동 준칙 10계명을 제정, 16일 선포식을 가졌다. 10계명의 주요 내용은
·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 은행 및 고객의 정보를 허가 없이 누설, 이용하지 않는다 ·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일체의 사금융 알선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 임직원의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 윤리 실천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신뢰받는 선도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날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은 지난 7월 죽전리 마을회관에서 허태학 사장, 엄창섭 울주군수,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죽전마을(이장 박용준)과 "농촌 사랑 자매결연"을 맺었다. 죽전마을은 총 46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



삼성석유화학 허태학사장이 울산시 울주면 청량면 죽전마을과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모습

로 삼성석유화학은 이 마을에 인프라 구축, 상생의 문화정착, 수익형 농촌 육성 등 총 3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모범적인 "都·農 자매결연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노인정, 마을회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TV 등도 기증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생활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지난 94년부터 두동면 상월평리에 송아지 40마리(6천 500만원)와 장학금 2천 600만원 등 모두 1억 1천 7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왔으며, 지난 2003년에는 청량면 쌀 사주기에서 4천 800만원 상당의 쌀을 수매하기도 했다.

• **KTF(대표 남중수)**의 2003년 연차보고서가 세계최고의 연차보고서 평가기관인 미국 머콤사가 주관하는 '2004 세계 연차보고서 대회(IARC어워드)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부문 1위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업의 IARC어워드 금상수상은 지난해 삼성전자 이후 KTF가 두 번째다. KTF는 지난 6일 국제 마케팅조사기관인 LACP가 주관한 연차보고서 평가에서도 금상을 받았다.

• **한국아쿠르트(대표 김순무)**는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 1억원을 부스르기사랑나눔회에 전달하였다. 이 성금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나무를 심는 학교' 등 전국 11개 공부방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1년 급식비로 활용된다.

• **유한양행(사장 차중근)**은 지난 7월 19일 서울 백병원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인제대학교 약물유전체연구센터와 산학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 유육현 한국수맥학회중앙회장은 8월 3일 충남 공주에서 지당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유육현회장 공주지당박물관 개관식

지당박물관은 전 세계의 희귀하고 다양한 동물, 곤충(나비), 광물, 화석 등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날로 늘어가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지역교육시설이 부족한 현실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의미가 중요한 만큼, 수십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약 25만점을 수집하여 공주에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심태평 충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여러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월간 Diplomacy 임덕규 회장은 지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국제법협회 총회에 평생부회장으로 참석하였다. 임회장은 평생부회장 자격으로 영국 슬린경, 인도대법원장, 해양법재판소장 등 세계 각나라 최고 국제법 지도자들 약 80명을 초청 노예해방을 주도한 선조를 가진 영국 전 대법원장 윌버휘스경 추모 오찬을 베풀어 국위선양을 하였다.

- 유리스투자자문(주) 홍승기 회장은 지난 8월16일 요가라이프(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 대청역지부)를 개설하였다.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2층
- 전 화 : 02-3413-5454/5
- 개설자 : 유리스투자자문(주) 회장 홍승기
- 원 장 : 홍현지

- 소양해운 이윤수 사장은 8월31일 부로 퇴직하고 9월 1일부터 NYK LINE(KOREA) CO.,LTD의 고문으로 2년간 근무하게 되었다.

- NYK(LINE) CO.,LTD -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B/D 22층
- 전화 : 02-398-1190
- 팩스 : 02-398-1007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에스엔케이폴리텍(주) 송재문 회장의 아들 진호군의 결혼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04년 9월 4일 토요일 낮12시 30분
- 장소 : 신사동 소망교회 선교관 2층 제1예배실(T. 512-9191)

신규회원

이건호 농협대학 학장(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8월 5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27
- 전 화 : 031-960-4100
- 팩 스 : 031-960-4107
- E-MAIL : ghlee@nonghyup.com



김은영 (주)지오마케팅 대표이사(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8월 9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7-7
- 전 화 : 02-3443-9745
- 팩 스 : 02-3443-9747
- 업 종 : 출판 및 지도제작
- E-MAIL : beetle@beetlemap.co.kr
- 추천인 : 공한수 사장



홍성원 (주)현대홈쇼핑 부사장 대표이사(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8월 18일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 전 화 : 02-2143-2030
- 팩 스 : 02-3443-9747
- 업 종 : 통신판매업
- E-MAIL : swhong08@shinbiro.com
- 추천인 : 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동신선박에이전시	강부부 사장	(9월 1일)
소양해운(주)	이윤수 사장	(9월 1일)
성원에드워드(주)	김중조 사장	(9월 1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윤해영한복	윤혜숙 대표이사	(9월 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주)라꼬리닉드파리	권성욱 대표이사	(9월 4일)
주5일넷(주)	김봉중 대표이사	(9월 15일)
참옥돌귀금속	하경화 대표	(9월 15일)
(주)한철상사	조병철 사장	(9월 15일)
(주)휴먼뱅크	조형제 사장	(9월 17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0일)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 30일)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이중기업동우회 제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지난 8월 30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중기업동우회 제2그룹 (회장 전순표 / 세스코 회장)**은 가을의 문턱에서 9월 다락회 114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골프모임과 저녁모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모임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모임

일시 : 2004년 9월 7일(화) 오후6시 30분

장소 : 타워호텔 만복림 (02-2236-2121)

연사 : 이심 잡지협회 회장

주제 : 출세의 바른이해

- 골프모임

일시 : 2004년 9월 7일(화) 11시부터 5팀

장소 : 이스트밸리cc(031-760-3800~1)

*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 02-462-6323 / 011-222-6323 우창욱(총무)

02-424-5671 / 011-702-5672 최우영(골프간사)

• **이중기업동우회 제4그룹(회장 김용희 / 광인 회장)**은 지난 8월27일~29일 동안 회원 10여분이 중국 청도에 있는 차진영 사장님의 성부트레이딩 공장견학과 골프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방문 기간동안 중국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차진영 성부트레이딩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는 지난 8월19일 인도음식전문점 TAJ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향후 YCF 발전방향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기존 YCF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점차적으로 신규회원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YCF(Young CEO Forum)는 지난 1월 발족한 모임으로 향후 인간개발발연구원의 30년을 이끌어갈 젊은 회원들로 구성된 소모임입니다. 관심있으신 젊은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02-2203-7265 회원부)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은 8월 30일 오후7시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대응방향 - 은행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연은 이두호 한국자금중개 사장께서 발표하셨으며, 차백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와 장좌환 기업은행 본부장(전 중국 기업은행 천진 지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차이나클럽은 2003년 12월 중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중국에 관심이 많으신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분들과 강사님들 100여분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관심있으신 회원분께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03-7265 회원부)

• **지중해클럽**은 지난 8월 21일(토) 파주 출판문화단지의 구삼본 회원의 갤러리인 헤이리 아트밸리93 뮤지엄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헤이리 아트밸리에서 한층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지중해클럽 회원이신 구삼본 회원의 부친께서 지난 8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지방자치 아카데미소식

- 대전 서구청(가기산 구청장)에서 본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치대학」이 8월 20일 16회 강연을 끝으로 2기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시작된 2기 강연은 매주 금요일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844명이 수강하여 이번 수료식에서 723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치대학」은 대전서구 마스코트인 '사람이처럼' 구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열린 구민대학"으로 3기 강연은 2005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세원그룹 임원 2기 리더십교육 안내

세원그룹 제2차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임원진 교육이 총 16주 과정으로 8월 24일(화)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업무 면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LM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동지사 EPL 수료자 정기 모임 안내

1. 하수누마 게이끼 초청 강연
 - 일사: 2004년 9월 6일(월) 오후 6시30분
 - 장소: LMI 명동지사 교육장

2. 9월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곳: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북한산
- 일 사: 2004년 9월 11일(토) 오후 2시
- 집결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참가대상: LMI 수료자 및 가족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기간 : 9주간, 주1회 일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事小主義와 事大主義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고구려 사 문제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뜨겁다.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중국측 주장에 우리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를 느낀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상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온 느낌을 준다. 한중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던 차에 느닷없이 역사 문제가 불거져 두 나라 모두 불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고구려사는 엄연한 역사문제이므로 냉철하게 학자들에게 맡겨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상기시키면 될 문제라고 한다. 역사의 왜곡이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제 나라의 선왕이 "이웃나라를 사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맹자에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흥미롭다. "以大事小자는 樂天者也요 以小事大자는 畏天者也니 樂天者는 保天下하고 畏天者는 保其國이니이다." 이를 해석하면 이렇다. "대국의 입장에서 소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소국의 입장에서 대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이니, 하늘을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보전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맹자는 주장하고 있다. 맹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혜를 구해 보자.

첫째, 큰 나라는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기는 以大事小, 즉 事小主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로마가 천년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아닌 속주국인 작은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서로가 파트너십을 가졌기 때문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선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도 지금까지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대국이라는 좋은 평가를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받아왔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칭하면서 문화를 존중하고 남다른 대우를 했다. 근래에는 한국을 배우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구려사 문제를 통해 이러한 평가가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대국을 형성한 미국이 이라크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면 역시 대국이 소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추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국이란 모름지기 소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천하를 얻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事小主義 정신은 세계화시대에 선진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작은 나라는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는 以小事大, 즉 事大主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事大主義라는 말에 반감을 느낀다. 그 배경은 이성계가 고려말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명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4대 불가론 중의 하나로 사대주의를 내세운 데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조선을 창업하면서 사대주의를 표방하는 바람에 후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겨 놓기도 했다. 그런데 사대주의는 정말 나쁜 것일까. 사대주의는 맹자에서 보듯이 사소주의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형성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상호성을 전제로 생겨난 말이다. 일방적이 되어서는 양쪽이 불행해진다.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사대주의라는 역사적 피해의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작은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영원한 大國도 영원한 小國도 없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영원한 소국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한중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중국이 한국과 비교할 때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는 대국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경제발전단계와 문화면에서 중국보다 대국의 입장에서 서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한류 열풍이 중국을 휩쓸고 있는 게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런 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셈이다. 요즘 제기된 고구려사 문제도 중국이 우리를 일정부분 대국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

리가 존재가치가 없다면 중국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역사왜곡을 시도할 이유가 없을 터이다. 이렇게 보면 소국과 대국의 개념은 가변적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소국이 되기도 하고 대국이 되기도 한다. 사대주의와 사소주의를 균형 있게 간직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리더에게 주는 교훈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은 事小主義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리더십은 군림하는 게 아니다. 구성원들을 섬길 때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낙천자가 될 수 있다.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외천자의 단계를 넘어 낙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맹자는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사대주의를 맹목적으로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사대주의의 단계를 넘어서야 사소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훌륭한 부하가 훌륭한 상사가 되는 법이다. 사대주의 없이 사소주의가 있을 수 없고 사소주의 없이 진정한 사대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가정에서도 효자 밑에서 효자가 난다고 하지 않는가. 사소주의와 사대주의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이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사대주의나 영원한 사소주의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사대주의, 때로는 사소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논리이자 공존의 비결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성별간, 세대간, 학력간 갈등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과제를 던져준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사대주의와 사소주의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때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린다. 물론 상호간에 섬김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섬김이 사라지면 존경도 함께 사라지는 까닭이다.

고구려사 문제를 포함한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소주의와 사대주의를 진실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섬기는 자세가 체질화 될 때 대국이든 소국이든 리더든 부하든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보전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다.

以大事小와 以小事大, 事小主義와 事大主義, 樂天者와 畏天者의 개념을 음미하면서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적용해 보자. **人間**

환경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10 년만에 찾아온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는 예고를 증명이나 하듯이 불볕더위는 입추를 한참 지난 8월 중순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열대야 일수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더운 여름이다. 단지 더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위로 인해 사망자는 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젠 더위도 자연재해에 포함할 것이라고 할만큼 더위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더위는 훨씬 더 심각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속도도 막대하다고 한다.

왜 이럴까?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뭔가 지구환경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지구가 열 받아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지구가 왜 열 받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로 지구온실효과의 결과이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 지구는 더욱 열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데 있다.



얼마 전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거대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 방향이 바뀌고 북반구에 빙하시기가 도래하여 초강대국인 미국 등이 완전히 얼어붙어 인류가 모두 얼어죽는다는 영화이다. 물론 할리우드식 초인적인 아버지의 부성애가 너무 돋보여 영화 본뜻을 헛갈리게 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영화 속의 장면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와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원 짜리 생수를 사서 마시고 산소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어디 지구온난화뿐인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암환자와 장애아 출산 급증, 씨 없는 남자로 인한 인류 멸종위기,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지나친 인구 증가로 인한 빈곤과 물 부족 문제, 에너지 자원고갈과 남용 등도 앞으로 50년 후를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정부나 환경단체에 맡길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임을 명심하고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해결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아니 온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인류사회의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버리고 공멸의 나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나부터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양치질할 때 컵에 받아쓰는 일,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걷기를 좋아하는 일,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휴지 한 장 절약하는 일, 전원코드를 빼놓는 일,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사용하는 일, 나무 하나 더 심는 일, 음식 남기지 않고 적당하게 먹는 일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스스로 가난을 즐기는 자발적인 생활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하고, 욕심을 버리고 작고 소박하게 천천히 사는, 작은 것이 아름다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 삶의 터전인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단 하나뿐인 지구가 멸망하면 어찌될까? **人間**

김덕희 인천시의회 의원

1962년 생 / 인하대 경영학 박사 / '86~98 대우자동차(주) 홍보팀장 / '97~99 가천 길대학 경영학 외래교수 / '98~99 한국능률협회 전문위원 / '02~현 POP경영전략연구소 소장 / 인하대 경영학부 초빙교수 /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 부평구의회 제2대 의원 / 현 제4대 인천시의회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 간사

人間探求의 아테네올림픽



제27 회 아테네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여러 면에서 이채로운 점이 많아 보인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인 것은 人間과 神이 만나 만들어 놓은 '神人の都市' 아테네에서 처음 올림픽제전이 개최된 이래 200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그 본고장으로 錦衣還郷하여 올림픽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열린 제전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세계 60억 인류가 다함께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알라'라는 인간탐구의 교훈과 정신으로 인간이 2000여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에 힘입어 이룩한 위대한 성취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을 포함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네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라는 두 단어의 영어로 만들어진 '가장 어려운 문장'을 남기고 간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인들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많은 神들과 만나 만들어 놓은 화려했던 아테네문명을 세 번째 밀레니엄(새천년)의 첫 번째(21세기)를 맞아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지 않고도 IT기술을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아테네올림픽이었다.

'악법도 법만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과 결단으로 毒杯를 받아 마시고 그의 생을 마감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된다. 500년의 시간이 지나 인류사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잡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마감했다. 예수의 죽음은 그보다 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많이 닮아 보인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神과 人間을 탐구한 분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인간생명의 마지막인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神의 뜻을 따라 죽음으로써 인류역사에 영원히 살아남은 성자요, 구세주가 된 것이다. 이른바 生即死요 死即生이라는 깨달음으로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고 역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각각 가장 옳게 살려고 애썼던 의인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험악한 시대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의 배경으로 보았듯이 화려했던 아테네 거리를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뇌이면서 광인처럼 거닐고 있었던 철인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구인 기업들이 말하고 있듯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인재를 찾지 못해 애매우는 기업들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뇌이면서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거닐고 있는 철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되새겨 주고 있다.

「無限探求」정신의 企業家로서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종합기술원'을 창설하고 1개월 후 타계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설자의 경영신화는 천하의 인재를 찾아 보유하고 삼성의 미래를 인간의 無限探求정신에 걸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故人의 人間探求에 의한 無限探求의 先見之明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1937년에 창설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의 경영신화를 창조하게 된 것은 창설자 도요타 사키치가 無限探求정신이 함축된 人間探求의 경영철학을 도요타 경영의 밑바탕에 확고히 깔아두었던 결과였다고 믿게 한다.

이번 아테네올림픽에 모든 인종과 국가대표 챔피언들이 생생하게 보여주었듯이 無限探求정신으로 人間探求力을 발휘함으로써 보여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감케 했다. 참 승리자를 상징하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모든 챔피언들이 보여준 교훈은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챔피언들은 그들이 설사 금메달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인간 승리자로 성장한 것이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가 추구하는 세계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인간의 행복 그리고 진리와 자유의 수호정신은 바로 無限探求의 '人間探求 신앙'에서 발원한 것이다. 황장엽이 이른바 우주창조의 꽃, 최고의 자아, 인간승리자가 될 때까지 인간이야말로 無限探求의 바른 대상임을 믿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人間探求에 매진하자. (人間)

이 작은 습관이

한 가지 문겠습니다. 당신은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쯤에 주차하십니까? 거기에 따라 당신의 건강이, 아니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기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 들고 주차장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휴게소 들어오는 차들은 일단 가게 쪽을 향해 급진합니다. 그리곤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쪽을 찾아 기웃거립니다. 모두가 그러니 가게 앞은 언제나 붐비기 마련입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몇 바퀴를 돌아오는 극성파도 없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겠다는 계산이겠지요. 하지만 그러느라 쓰는 신경만 해도 엄청 피곤합니다. 거긴 사람들 통행량도 많고 특히 어린이들이 차 사이에서 튀어나올 땐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빈자리는 없고, 점점 열이 치받고 짜증이 더 납니다. 겨우 자리가 나면 서로 들어 갈려고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빈자리 찾았다고 편치 않습니다. 붐비는 쪽은 언제나 공간이 넉넉할 수 없습니다. 겨우 비집고 들어가도 문 열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나오는데 그만 옆 차를 살짝 부딪치게 됩니다. 옆 차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 없지요. 험한 얼굴로 뛰쳐나옵니다. 부딪친 곳을 살

펴보는 눈엔 살기마저 등등합니다. 곧 한 방 날라 올 거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입니다. 사과를 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는데도 마치 코피나 터진 것처럼 신경질을 내는 게 한국 사람의 기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가는 말이 고을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모두가 나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경우도 난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 끝내 온 가족이 잡혀갑니다.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작은 습관이 빛은 비극입니다. '가까운 쪽에'라는 습관 탓입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 모두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텅 빈곳으로 가십시오. 주차하기도 편하고 주위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양쪽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환기하기도 좋습니다. 좀 도둑이 뺨 털 걱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곳을 노리는 바보는 없지요. 도둑은 붐비는 곳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안 하는 것으로도 편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려서 가게까지 한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거리 운전엔 온 몸을 푸는데는 걷는 것만큼 확실한 운동이 달리 없습니다. 웅크린 자세를 펴고 혈액 순환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일부러라도 멀리 주차해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무슨 시비냐고요? 문제는 당신이 매사에 그렇다는 데 있습니다. 빨리, 편하게, 습관성 경쟁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물을까요? 당신은 한 달에 경적을 몇 번 울리나요? 한 달은 커녕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고 있을 겁니다. 주차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경적 횟수와 교통사고가 정비례한다는 것쯤 알고 계시겠지요? 습관과 운명의 관계가 궁금하거든 병원에 와 보십시오.

양보가 패배나 되는 듯한 기분이라면 당신은 어느 한 순간 편할 수 없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순간 공격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당신은 그만큼 공격적으로 됩니다. 비좁은 곳에 주차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스럽거나 무모하고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사에 급하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당신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의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암... 생활 습관병이라는 병명이 왜 생겼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평소 생활의 그 작은 습관이! (人間)



판스프링 / 코일스프링 / 정밀스프링 / 금형스프링 / 스테빌라이저바 / 각종 차량용 시트 / 코일서비스센터 / 건축용 성형강판



“스프링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 스프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편리한 생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스프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볼펜, 시계 등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기차, 선박 등 각종 운송장비,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등
최첨단 IT부품에 이르기까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프링 —
대원강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大圓鋼業株式會社

DAEWON KANG UP CO.,LTD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5
Tel.02-3455-7300, 7400 Fax.02-3455-7345~8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GE 한국경제발전의 장기 동반자로 성장

1878년 발명왕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시작한 GE는
항공기 엔진에서부터 발전설비와 금융서비스, 플라스틱 사업, 의료기기,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이르는 다각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복합기업입니다.
100여 개국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GE는 1,342억불의 매출과 156억불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약 31만 5천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GE는 1976년 출범 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직접 또는 합작 투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장기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1,300 여명의 임직원들이 약 33억불의 사업 규모를 달성하고 있으며
매년 7억 달러 이상의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한국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성장하였습니다.

GE와 함께하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GE imagination at work

<http://www.ge.com>
<http://www.ge.co.kr>
대표전화 (02) 528-0030